

山林所有構造의 特性과 變化推移

李 廣 遠

首席研究員, 山村開發室

- I. 序 論
- II. 山林所有 實態와 特性
- III. 經濟發展과 山林所有構造 變化
- IV. 結 論

I. 序 論

우리 나라 山林所有構造는 어느 나라보다 복잡하고 그 規模 또한 零細하다. 이는 日帝下 林野 調査事業에 의한 所有權確定 단계에서 근거가 확실한 山林所有申告를 기본으로 査定 確定한 데서 비롯된다. 山林所有가 山林經營을 전제로 한 所有權 確定이 아니었다. 때문에 우리 나라 山林所有의 起源이 되었던 소규모의 墓域과 燃料採取地, 農用採草地로 이용해 왔던 山林圈域을 所有地로 확정시킨 데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山林利用이 빈번한 緩傾斜地, 村落 주변의 山林은 소규모의 복잡한 地形構造를 따라 劃定된 所有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山林利用이 적은 奧地 등은 대규모 또는 緣故者가 없는 國有地가 대부분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山林所有面積과 區劃의 大小와 形狀이 山林利用과 전혀 관계없이 劃定되었다.

또한 國公有林의 創出과 私有林의 확정 과정을 통하여 적지 않은 所有主의 變化가 발생하였다. 國公有林의 讓與와 貸付, 拂下 등 전체 所有構造의 變化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근간 經濟發展에 따른 山林利用 擴大 및 投機對象으로서의 山林의 重要性 등으로 不在地主 등 都市山主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山林所有構造의 實態變化에 따라 山林利用의 양상도 변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山林所有는 山地·山林政策 수행에 가장 중요한 基本資料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山林所有構造와 實態·變化·特性 등을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분석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分析資料는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4개 郡 4개 面을 대상으로 山林登記簿를 분석 정리하였다. 首都圈으로는 京畿道 安城郡 孔道面을, 山間地域으로 江原道 橫城郡 公根面을, 中間地域으로 忠北 淸原郡 梧倉面, 그리고 平野地域으로는 全北 金堤郡 金溝面을 대상으로 하였다. 總調査對象面積은 12,839.9 ha 에 7,689筆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 사실이다. 小規模의 筆地가 地理的 地形的 條件에 따라 小規模로 分割 不規則的으로 배열되어 있다.

II. 山林所有 實態와 特性

山地利用은 山地가 위치한 지역의 地理地形的·氣候的·社會經濟的 諸要因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나라 山地는 대부분 林地로서 山林 일변도로 우리 나라 山林所有規模가 零細하다는 것은 주 이용해 왔을 뿐 山地를 보다 生産的인 方向으로

1. 山林所有規模의 零細性

우리 나라 山林所有規模가 零細하다는 것은 주

表 1 地域別 規模別 筆地數 및 山主數分布*

規模別	安城郡		淸原郡		橫城郡		金堤郡		計	
	筆地數	山主數	筆地數	山主數	筆地數	山主數	筆地數	山主數	筆地數	山主數
0.1ha 이하	209 (44.8)	68 (25.6)	599 (27.7)	233 (13.6)	39 (3.4)	18 (2.1)	553 (24.9)	307 (18.8)	1,400 (22.4)	626 (14.0)
0.1~0.2ha	46 (9.9)	27 (10.2)	213 (8.8)	111 (6.5)	50 (4.4)	35 (4.0)	271 (12.2)	188 (11.5)	580 (9.3)	361 (8.1)
0.2~0.4	50 (10.7)	32 (12.0)	225 (10.5)	194 (11.3)	71 (6.2)	43 (5.0)	300 (13.5)	213 (13.1)	676 (10.8)	482 (10.8)
0.4~0.6	29 (6.2)	22 (8.3)	21 (8.8)	157 (9.1)	78 (6.8)	63 (7.3)	214 (9.6)	173 (10.6)	535 (8.6)	415 (9.3)
0.6~0.8	32 (6.9)	21 (7.9)	158 (6.5)	126 (7.3)	58 (5.1)	35 (4.0)	162 (7.3)	108 (6.6)	410 (6.6)	290 (6.5)
0.8~1.0	23 (4.9)	19 (7.1)	125 (5.2)	99 (5.5)	60 (5.3)	45 (5.2)	105 (4.7)	97 (5.9)	313 (5.0)	260 (5.8)
1.0~1.5	27 (5.8)	26 (9.8)	241 (9.9)	190 (11.1)	132 (11.6)	91 (10.5)	205 (9.2)	179 (10.9)	605 (9.7)	486 (10.9)
1.5~2.0	18 (3.9)	15 (5.6)	172 (7.1)	149 (8.7)	118 (10.3)	88 (10.2)	106 (4.3)	94 (5.8)	414 (6.6)	346 (7.7)
2.0~3.0	16 (3.4)	15 (5.6)	184 (7.6)	156 (9.1)	148 (13.0)	115 (13.3)	122 (5.5)	99 (6.1)	470 (7.5)	385 (8.6)
3.0~4.0	9 (1.9)	9 (3.4)	103 (4.2)	98 (5.7)	96 (8.4)	67 (7.7)	56 (2.5)	50 (3.1)	264 (4.2)	24 (5.0)
4.0~5.0	1 (0.2)	3 (1.1)	49 (2.0)	54 (3.1)	68 (6.0)	53 (6.1)	23 (1.0)	31 (1.9)	141 (2.3)	141 (3.2)
5.0~7.0	1 (5.2)	2 (0.8)	51 (2.1)	59 (3.4)	86 (7.5)	72 (8.3)	31 (1.4)	32 (2.0)	169 (2.7)	165 (3.7)
7.0~10.0	2 (0.4)	3 (1.1)	31 (1.3)	32 (1.9)	58 (5.1)	52 (6.0)	42 (1.9)	30 (1.9)	133 (2.1)	117 (2.6)
10.0~15.0	3 (0.6)	4 (1.5)	21 (0.9)	29 (1.7)	38 (3.3)	40 (4.6)	18 (0.8)	17 (1.0)	80 (1.3)	90 (2.0)
15.0~20.0			6 (0.2)	11 (0.6)	22 (1.9)	23 (2.7)	5 (0.2)	6 (0.4)	33 (0.5)	40 (0.9)
20.0~30.0			4 (0.2)	4 (0.2)	14 (1.2)	12 (1.4)	1 (-)	2 (0.1)	19 (0.3)	18 (0.4)
30.0~50.0			3 (0.1)	5 (0.3)	4 (0.4)	5 (0.6)	3 (0.1)	4 (0.2)	10 (0.2)	14 (0.3)
50.0~80.0				1 (-)	1 (0.0)	7 (0.8)			1 (-)	8 (0.2)
80ha 이상						2 (0.2)		1 (0.1)		3 (0.1)
計	466 (100.0)	266 (100.0)	2,429 (100.0)	1,708 (100.0)	1,141 (100.0)	866 (100.0)	2,217 (100.0)	1,631 (100.0)	6,253 (100.0)	4,471 (100.0)

()은 構成比임.

*國公有林除外.

資料: 安城郡 孔道面, 淸原郡 梧倉面, 橫城郡 公根面, 金堤郡 金溝面 所在 山林登記簿 調査(1984.9).

이용하지 못하였다. 所有山地 가운데 평평한 緩傾斜地는 개간하여 부족한 食糧作物이나 菜蔬를 재배하는 데에 이용해 왔다. 때로는 有實樹를 재배하여 種實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의 면적은 山地下端의 일부 지역에 불과했다. 또한 農家の 주요 연료를 林産燃料에 의존하였고 부족한 堆肥나 綠肥를 생산하기 위해 山林을 伐採 이용해 왔을 뿐 林木生産地로서 중요시하지 않았다.

農家が 木材生産機能을 담당할 수 있었다면 大面積 粗放經營의 利點을 발견하고 山林所有 또한 大規模爲主의 所有 및 利用構造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山地의 利用價値가 적었고 家計充足 형태의 農用林業에 그쳤기 때문에 山林利用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중요한 山林利用 형태로서 墓地의 중요성이 있었다. 儒敎的 觀念하의 祖上崇拜와 墓所三年拜禮의 풍속은 村落과 가까운 山地의 墓地化를 가속시켰다. 결과적으로 山地의 零細化와 分割化가 촉진되었다. 山地利用도 山林經營과는 관계없이 小規模利用을 중심으로 그의 경계가 그어졌을 것이다.

〈表1〉은 規模別 筆地數와 山主數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0.2ha 이하 극히 영세한 山林을 소유하고 있는 山主가 전체의 22.1%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0.2ha 이하로 細分된 筆地數가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ha 이하의 山林所有主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筆地數의 62.6%를 점유하고 있다. 零細山主 및 細分된 筆地가 과반수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首都圈, 平野部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安城郡의 경우는 1ha 이하 山林所有主가 71.1%에 달하며 筆地數의 83.4%가 1ha 이하이다. 더욱 심한 것은 15ha 이상 所有山主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山林

經營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10ha 이상 山林所有主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이런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金堤郡, 淸原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하여 橫城郡은 1ha 이하 小規模 筆地가 전체의 31.2%로서 전체 平均 62.6%의 절반에 불과하다. 筆地當 平均面積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山間地域은 平野部나 都市地域보다 人口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墓地需要가 적고 土地價格이 낮아서 小規模 林野 分割購入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정도 큰 筆地라도 地價가 싸기 때문에 分割이 필요없이 全筆地 賣買가 이루어져 零細化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林業經營體로 육성이 가능한 10ha 이상 所有山主는 3.9%에 불과하며 50ha 이상 大規模山主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所有規模도 零細할 뿐만 아니라 筆地當 面積規模 또한 극히 영세하다.

이상은 순전한 個人所有의 私有林의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면 國公有林과 共有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共有林의 실상은 어떤가 살펴보자. 國公有林의 역할은 어느것보다 크다. 國公有林은 국민의 山林에 대한 公益機能을 담당해야 하며 國家需要에 맞는 木材를 生産供給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社會的 要求 증대에 따라서 國有林面積을 점차 증대해 가는 추세이다. 특히 國有林의 木材價格調節 기능은 林業發展을 위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大面積의 國有林을 集團造成하여 보다 효율적인 經營管理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營林署 관할 일부 國有林을 제외하고는 國有林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든 입장이다.

〈表2〉는 國公有林 및 共有林의 規模別 分布를

表 2 國公有林, 會社, 法人, 宗中所有林의 規模別 分布

단위 : %

規 模	安 城 郡			淸 原 郡			橫 城 郡			金 堤 郡			計		
	國 有 林	會 社 法 人	宗 中	國 有 林	會 社 法 人	宗 中	國 有 林	會 社 法 人	宗 中	國 有 林	會 社 法 人	宗 中	國 有 林	會 社 法 人	宗 中
0.2ha 이하	53.8	40.0		51.7	28.6		23.7			58.9	28.6		45.6	21.6	
0.2~ 0.4				8.1	28.6	5.6	8.8			7.1		5.5	7.9	5.4	4.2
0.4~ 0.6	7.7	10.0		5.2	14.3		4.4	7.7		7.1	14.3		5.3	10.8	
0.6~ 0.8		20.0		3.3	28.6	5.6	6.1		16.7	7.1		5.5	4.4	10.8	6.3
0.8~ 1.0	15.4			3.0		5.6	7.0			3.6		5.5	4.4		4.2
1.0~ 1.5		10.0	16.7	4.1		22.2	4.3			8.9		22.2	4.6	2.7	18.8
1.5~ 2.0	15.4		16.7	3.3			4.3	15.4			14.3		3.5	8.1	2.1
2.0~ 3.0	7.7	10.0		7.7		11.1	1.8	15.4	16.7	1.8	28.6	11.1	5.51	13.5	10.4
3.0~ 4.0			33.3	6.3		5.6	7.9	7.7		1.8		5.5	5.9	2.7	8.3
4.0~ 5.0				1.8			2.6	15.4					1.8	5.4	
5.0~ 7.0				1.1		5.6	5.3	23.1		1.8	14.3	5.5	2.2	10.8	4.2
7.0~10.0				1.8			7.0	7.7	16.7				2.9	2.7	2.1
10.0~15.0		10.0	33.3	1.1		11.1	5.3		16.7			11.1	2.0	2.7	14.6
15.0~20.0				0.7			2.6		16.7	1.8			1.3		2.1
20ha 이상				0.7		27.8	6.1	7.7	16.7			27.8	2.6	2.7	22.9
山主 또는 筆地數	13	10	6	271	7	18	114	13	6	56	7	18	454	37	48

資料 : <表 6 과> 同一.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國公有林이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散在해 있다. 面積 또한 私有林과 다를 바 없이 극히 영세하다. 調査對象地域 總國公有林 454筆地 가운데 0.2ha 이하 筆地가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67.6%가 1ha 이하이다. 20ha 이상 筆地(集團으로 모여있는 여러 筆地 포함)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그것마저 集團化되어 있지 못하고 각 私有林 筆地 사이에 소규모 필지가 산재해 있어 정확한 위치조차 찾기 힘든 형편이다. 地域別로는 首都圈, 平野部 등지 國公有林規模는 50% 이상이 대부분 0.2ha 이하 小規模 筆地로 점유되어 있으며, 1ha 이하가 75% 수준이었다.

會社·法人 所有林 또한 國公有林과 큰 차이가 없다. 1ha 이하 零細筆地가 전체의 48.6%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宗中所有林은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所有 중 가장 많은 22.9%가 20ha 이상 大規模 所有이다. 1ha 이하 所有 山主는 14.7%로 다른 것과 비교하여

적다. 그러나 宗中林은 木材生産을 위한 山林所有가 아니라 墓地防護를 위한 山林이다.

2. 筆地의 增加와 分割分散性

이와 같이 所有規模가 작은 까닭은 山林利用에 대한 사회경제적·역사적 歸結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그러나 所有規模가 작은 까닭이 所有權이 확립되었던 日帝下 林野調査事業 완결 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이후 사회 변천에 따라서 所有規模가 零細化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所有規模가 零細化되었다는 것은 山林面積은 일정한데 所有主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이며, 결국 筆地數가 증가하였다는 이야기이다. 京畿道 安城郡 孔道面, 淸原郡 梧倉面, 橫城郡 公根面, 金堤郡 金溝面 등 4개 面 所在 전체 私有林의 登記簿調査 결과 山主數 및 筆地數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4개 面 私有林 總面積 9,902.6ha에 대한 同一面積에 대하여 1944년의

경우 山主數는 3,817명이었는데 1984년에는 4,471명으로 654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筆地數의 增加 현상을 보였는데, 同一面積에 대하여 1944년 5,218筆地였던 것이 1984년에는 6,253筆地로 1,035개 筆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山主當 所有面積이 1944년 2.6ha에서 1984년에는 2.2ha로 0.4ha의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筆地當面積도 1944년 1.89ha에서 1984년에는 1.58ha로 축소되었다.

山林所有主의 증가와 筆地數의 증가는 새로운山林所有者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既存筆地를 어떻게 取得하느냐에 따라 增加推移와面積이 달라질 것이다. 즉, 山林所有主의 賣買行態와 相續行態에 따라 所有規模나 筆地面積이 결정된다. 山林購入者가 全筆地를 구입하지 않고 分割購入을 할 경우 그만큼 筆地面積은 작아진다. 相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相續人이 여럿일 경우 分割相續을 하면 그 면적은 감소되며, 共同相續의 경우에도 分割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 山林所有規模는 零細化, 分割化되며 筆地數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이나 日帝下에서나 所有面積에는 큰 차이가 없이 영세하다.

문제는 山林所有主가 소유하고 있는 山林이 集團化되어 있지 않고 分散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山林所有規模가 클수록 많은 筆地를 소유하고 있다. <表3>은 筆地數別 山主數와 戶當 平均面積 및 集團化率을 나타낸 것이다. 山林所有者의 73.1%가 1筆地의 山林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山林面積의 49.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戶當 10ha 이상 山林所有者의 대부분이 6筆地 이상의 많은 筆地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面積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10ha 이상 山林所有主가 점유하는 面積이 7.6%에 불과한

것은 그만큼 山林經營 可能林野가 적은 것이다. 한 마디로 所有規模가 크다는 것은 작게 細分한 필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데 불과하다.

集團化率을 보면 筆地數가 많은 것일수록, 다시 말하여 所有規模가 큰 계층일수록 所有山林이 集團化되어 있지 못하고 分散되어 있다. 所有規模 10ha 이상으로서 筆地數 6~8개 所有山主 筆地數의 13.9%만이 所有筆地數의 1/2 이상이 集團化되어 있다. 12筆地 이상 山林所有主는 3.5%에 불과하다. 所有筆地의 거의 대부분이 散在해 있다는 이야기이다.

10ha 規模의 山林을 소유하려면 최소한 5~6

表 3 筆地數別 山主數, 平均面積 및 集團化率*

筆地數	所有戶數		戶當 平均面積 (ha)	總面積 (ha)		集團化率 (%)
	數 量	%		面 積	%	
1	3,255	73.1	1,513	4,924.81	49.7	100.0
2	849	19.1	2,733	2,320.28	23.4	42.1
3	188	4.2	5,842	1,098.30	11.1	54.9
4	74	1.7	7,360	544.64	5.5	36.6
5	33	0.7	7,779	256.71	2.6	18.7
6~8	38	0.9	11,621	441.60	4.4	13.9
8~12	8	0.2	15,937	127.49	1.3	13.2
12필지이상	8	0.2	23,592	188.74	1.9	3.5
計	4,453	100.0	2,229	9,902.57	100.0	—

*集團化率 = $\frac{\text{所有筆地의 1/2 이상인 인접한 筆地數}}{\text{全 所有筆地數}} \times 100$

資料: <表1>과 同一.

筆地의 山林을 구입해야 하는데, 山林을 한 곳에 集團化하기는 그만큼 어렵다. 대부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거나 行政區域이 다른 먼 거리를 두고 分散되어 있다. 인접해 있어도 몇 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10ha 이상 大規模 山林所有主라도 단지 所有일 뿐이지 集團化되어 規模의 經濟를 가지고 있는 山林은 아니다. 즉, 山林經營을 위한 大面積 所有가 아니라 小規模의 山林을 이곳저곳에 소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大面積 所有者가 된 것에 불과하다. 이것

이 우리 나라 山林所有 형태의 기본적 문제이며 構造改善의 어려움이다.

Ⅲ. 經濟發展과 山林所有構造 變化

1. 山林所有 變化推移

林野는 量的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支配的인 利用形態이다. 林野利用은 직접 간접으로 國土 전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國土利用문제에서 中樞的 핵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까지 山林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耕地·草地·宅地·工場用地·市街地 등의 조성에 필요한 用地로 개발 또는 外延的 擴大의 대상으로 이용되어 왔다. 山林은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木材 등 林產物 生産이라는 經濟的 機能과 國土保全·水資源涵養·自然環境 保全 등의 公益的 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 公益的 機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앞으로 山林 문제는 資源 문제 또는 環境 문제와 관련

하여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山林은 그의 성격상 公共財的 性격을 가지고 있어서 資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山林은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社會的 要求증대에 따라 각종 用地 또는 資源으로 조달 공급되었다.

〈表4〉는 建國 후 우리 나라 山林所有變遷 內容을 나타낸 것이다. 表에서 보면 1960년대를 중심으로 山林面積 變化樣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山林 및 林野利用은 國土利用計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1960년대는 5 年 經濟開發計劃이 처음으로 시도된 시기이다. 1940년 6,540千 ha 이던 山林面積이 1960년에는 6,757千 ha 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85년말 현재 6,531千 ha 에 이르고 있다. 光復 前 軍糧米 確保를 위한 增產策으로 많은 山林이 農地로 개간되었으며, 光復 後 또한, 6·25 動亂을 거치면서 많은 山林이 耕地化되면서 山林面積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收復 後 造林擴大로 다시 耕地가 山林으로 轉換하는 과정을 밟았다. 山腹 또는 山腰 이하의 火田地나 山間奧地의 田畝이 다시 山林化하거나 造林으로 山林面積이

表 4 建國後 山林所有變遷

단위 : ha

區 分	1940	1951	1960	1963	1973	1985
國 存 林	786,047	1,242,757	1,416,530	1,313,666	1,303,272	1,313,932
○要 存 林		503,654	910,669	882,335	882,635	918,117
○不 要 存 林		248,588 21,953	466,132	311,862	318,429	291,562
○他 部 處 所 管		귀속림 468,561	39,729	119,457	102,208	104,253
民 有 林	5,753,966	5,226,105	5,340,196	5,429,261	5,337,768	5,198,033
○公 有 林	625,177	564,787	571,935	501,607	500,048	493,207
一 道 有 林 (寺 刹 林)					146,444 (353,604)	142,912 350,295
一 郡 有 林	96,887	86,669				
○私 有 林	5,031,902	4,576,649	4,768,261	4,929,654	4,837,720	4,704,826
計	6,540,013	6,468,862	6,756,726	6,742,927	6,641,040	6,531,102

資料 : 山林廳.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61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했다. 第3共和國 政府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農工併進政策이 추진되었다. 投入財의 價格引下와 農產物價格支持로 상당한 農產物 植付面積이 증대되었다. 이와함께 絶對貧困의 해소와 主穀自給 達成이라는 政策目標하에 野山開墾事業이 시작되었다. 野山開發은 1970년대에 들어와 山地의 農業的 利用뿐 아니라 農業 이외의 他目的 利用을 위한 山地轉用이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말부터 시작한 韓國經濟의 급속한 발전과 産業化로 工場 및 都市, 道路 등 産業用地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1963년에서 1973년까지 10개년간 약 10萬 ha의 山林이 他用途로 전용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國民所得增加로 食品消費構造가 多樣化·高級化되면서 畜產物生産을 위한 草地 등 山地轉用事例가 증가하였다. 결국 1960년에서 1985년 기간 동안 약 225千ha의 山林이 他用途로 轉用된 셈이다.

所有別 林野面積 또한 變化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國有林面積은 增加 또는 停滯 상태에 있는데, 民有林面積은 1963년 이후 減少趨勢에 있다. 山林面積의 감소는 비교적 民有林面積의 감소에서 기인되었다. 또한 國有林 가운데 要存林의 면적은 漸增하는데 반하여 不要存國有林의 면적이 1960년에서 1985년간 174.6千ha가 감소되었다. 私有林은 1960년 이후 別大差없이 微減趨勢이나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비해 公有林面積은 1960년 571,935ha에서 1985년 493,207ha로 감소하고 있다. 즉, 山林面積의 가장 큰 減少要因은 國公有林의 감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國公有林이 私有林으로 전환된 것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이 他用途 轉用

을 위한 林野供給源이 不要存國有林과 道·郡有林 등 公有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 현재 山林所有 形態를 보면 山林面積의 대부분이 民有林으로 구성되어 있고, 國有林은 20.1%에 불과하다. 民有林面積은 5,198千ha로 전체 면적의 79.7%를 점하고 있다. 民有林 가운데 私有林의 비중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 私有林經營의 가장 큰 문제점은 所有規模가 극히 영세하다는 점이다. 山主 1인당 所有面積은 2.6ha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私有林에 있어서 10ha 이상의 山林規模를 가지고 있는 山主比率은 4.3%에 불과하며 전체 山林面積에 대한 構成比率은 42.4%이다.

山主 또한 不在山主가 전체 山主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面積으로는 20.1%가 不在山主의 山林이다. 그러나 이 統計値가 1971년말 자료이기 때문에 16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不在山主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不在山主의 대부분은 山林經營보다 墳墓地 確保 또는 投機目的으로 山林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특히 30ha 이상 大面積 山林의 29.7%가 不在山主의 山林이다. 面積 構成比에서 보면 100ha 이상 大規模 山林에 있어서 所在山主의 面積比重은 7.8%에 불과한데 비하여 不在山主 所有比重은 16.2%나 된다. 이는 大規模 山林일수록 不在山主의 비중이 높으며 投機目的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1~5ha 규모 山主 또한 山林을 경영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1~5ha 규모의 山林所有主는 그 규모가 작아서 農業補完的인 農用林業에 불과하다. 곧 전체 山主의 88% 이상이 정상적인 山林經營을 할 수 없는 山主이다. 이와 같이 5ha 미만의 零細山主 및 小規模山主들이 소유하고 있는 山林面積 比率은

表 5 山林 所有規模別 山主 및 面積 比較, 1964~71

所有規模	1964年度			1971年度		
	所有者數	比率	面積比	所有者數	比率	面積比
1ha 미만	746,498	49.8	10.8	985,140	55.9	8.3
1ha 이상 10ha	668,331	44.7	49.9	699,519	39.8	49.3
10ha 이상 100ha	80,571	5.4	31.8	73,908	4.2	32.9
100ha 이상 500ha	1,506	0.1	5.8	1,807	0.1	6.4
500ha 이상	67	—	1.7	121	—	3.1
計	1496,973	100.0	100.0	1,760	100.0	100.0

資料 : 韓國林政研究會, 「治山綠化 30年史」, p.136.

전체 私有林面積의 40%에 해당한다.

다음 <表 5>는 1964년과 1971년간의 山林所有 規模別 所有山主數와 面積을 비교한 것이다.

1963년의 山林所有者는 1,496,973명이었으나 1971년에는 263,522명이 증가한 1,760,495名으로서 所有者가 급격히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所有規模別로 보면 10ha 미만과 100ha 이상의 山林所有主는 증가하였고 10~100ha 규모의 所有主는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所有規模의 零細化와 함께 한편으로는 大型化되어 가는 兩極化 現象을 보이고 있다.

2. 山林所有 構造와 他用途利用

<表 6>은 地域別 山林所有 및 他用途利用 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他用途 利用 내용은 林野 台帳에 의거 해당 面이 山林地 「地番別調書 카드」에 의해 파악한 것이다. 地番別 調書 카드는 地番에 따라 山林, 田, 畚, 墓地, 溝渠 등 林野 筆地 하나하나의 현상을 파악하고 等級을 매겨 稅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현재 이용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表 6>에서 보면 地目이 현재 林野로 되어 있어도 田畚 등 他用途로 이용되고 있는 山林이 전체의 1.6%에 해당된다. 內容別로 보면 畚이 0.8%, 牧場地 0.5%, 溝渠 0.1% 기타 果樹地, 墓地 등이다. 地域別로 보면 地域間에 큰 차이가 있었다. 비교적 土地利用率이 높고 地價가 비싼 首都圈地域이나 平野部일수록 他用途 利用率이 높고 山間部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安城郡 孔道面의 경우 전체 山林面積의 19.2%가 他用途로 이용되고 있다. 地目만이 林野로

表 6 地域別 山林所有 및 他用途 利用現況

단위 : ha, %

用途別	安 城 郡		淸 原 郡		橫 城 郡		金 堤 郡		計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總 山 林 面 積	373.40	100.0	4,025.59	100.0	6,490.70	100.0	1,950.20	100.0	12,839.89	100.0
林 野	301.72	80.8	3,958.35	98.3	6,485.10	99.9	1,889.81	96.9	12,634.98	98.40
— 個人所有	238.35	63.8	3,373.88	83.8	3,956.00	60.9	1,524.91	78.2	9,093.14	70.8
— 郡面所有	6.03	1.6	137.85	3.4	259.03	4.0	45.22	2.3	448.13	3.5
— 國 有	2.73	0.7	227.86	5.7	2,034.63	31.3	19.01	1.0	2,284.28	17.8
— 會社法人	20.05	5.4	6.80	0.2	85.95	1.3	11.38	0.6	124.18	1.0
— 宗中所有	34.56	9.3	211.96	5.3	149.44	2.3	289.29	14.8	685.25	5.3
他 用 途 利 用	71.68	19.2	68.18	1.7	5.60	0.0	60.39	3.1	205.91	1.6
— 田 畚	3.03	0.8	39.85	1.0			60.39	3.1	103.27	0.8
— 道 路	7.45	2.0	8.40	0.2	0.13	0.0			15.98	0.1
— 溝 渠	1.03	0.3	3.46	0.1	2.13	0.0			6.67	0.05
— 牧 場 地	59.43	15.9	5.72	0.1					65.15	0.5
— 果 樹 地			10.02	0.2					10.02	0.08
— 墓 地	0.74	0.2	0.08		3.29	0.0			4.09	0.03
— 空 地	—	—	0.72	—					0.72	0.00

되어 있을 뿐 보다 生産性이 높은 草地, 田畝 등으로 轉換 이용하고 있다. 他用途 利用率 1.6%를 전국 山林에 準用하면 약105千ha의 山林이 地目轉換없이 他用途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他用途轉用 형태에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安城郡의 경우는 草地利用이 가장 많고 淸原·金堤郡과 같이 都市近郊 또는 平野地에서는 田畝利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林野所有를 所管別로 보면 전체 山林의 17.8%가 國有林이고 郡面 所有山林이 3.5%를 점하고 있다. 民有林으로는 個人所有 林野가 70.8% 會社·法人所有가 1% 宗中所有 林野가 5.3% 등 77.1%를 점유하고 있다. 地域別로는 비교적 山林面積率이 많고 中山間地域에 갈수록 國有林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地價가 높고 山地利用 전망이 좋은 지역일수록 會社 및 法人所有 山林比重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山林面積의 30%가 國公有林 또는 共同管理 형태의 山林으로 放置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地價가 높은 首都圈地域과 地價가 싸고 山林利用 전망이 좋은 山間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經濟發展에 따라 더 많은 山

地가 他用途, 共同管理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山林經營에 관심을 가지는 山主가 적어지고 放置山林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를 山主 性格別로 보면 地域別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7〉은 地域別, 所有別, 山主 性格別 山林面積을 나타낸 것이다. 國公有, 共有林을 제외한 순수한 개인 소유 山林은 70.8%이다. 이 가운데 大都市 居住山主가 소유하는 山林面積은 12.2%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 山林所在地의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山主가 소유하는 山林面積이 9.4% 그리고 他地域에 거주하는 山主의 山林面積은 6.4%이다. 결과적으로 山林 가까이서 山林所得이 가능하고 管理 또는 山林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地域山主가 점유하는 山林面積은 전체 山林面積의 42.8%에 불과하다. 調查對象 山林面積의 약 60%가 放置 또는 山林으로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私有林 가운데 都市山主가 점유하는 山林面積 比重이 3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首都圈에 가까울수록 大都市 山主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安城郡의 경우 전체 山林面積의

表 7 地域別, 所有別, 山主性格別 山林面積

단위 : ha, %

區 分	安 城 郡		淸 原 郡		橫 城 郡		金 堤 郡		計	
	面 積	比 率	面 積	率 比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總 山 林 面 積	373.40	100.0	4,025.59	100.0	6,490.70	100.0	1,950.20	100.0	12,839.89	100.0
他用途利用面積	71.68	19.2	68.18	1.7	5.58	0.09	60.39	3.1	205.83	1.6
現存林野面積	301.72	80.8	3,958.35	98.3	6,485.10	99.9	1,889.81	96.9	12,634.98	98.4
公 用 林	63.37	17.0	584.47	14.5	2,529.10	39.0	364.90	18.7	3,541.84	27.6
—國 公 有 林	8.76	2.3	365.71	9.1	2,293.71	35.3	64.23	3.3	2,732.41	21.3
—會社·法人·宗中林	54.61	14.6	218.76	5.4	235.39	3.6	300.67	15.4	809.43	6.3
私 有 林	238.35	63.8	3,373.88	83.8	3,956.00	61.0	1,524.91	78.2	9,093.14	70.8
—大都市山主所有	122.75	32.9	588.58	14.6	662.05	10.2	193.00	9.9	1,566.38	12.2
—隣近都市山主所有	7.34	2.0	270.59	6.7	447.79	6.9	476.50	24.4	1,202.22	9.4
—他地域山主所有	24.90	6.7	310.83	7.7	388.61	6.0	98.90	5.1	823.24	6.4
—地域山主所有	83.26	22.3	2,203.88	54.7	2,457.55	37.9	756.51	38.8	5,501.20	42.8
私有林중都市山主比率		54.6		25.5		28.1		43.9		30.4

表 8 時期別, 所有別 山林面積*

단위 : ha, %

區 分	1 9 5 4		1 9 6 4		1 9 7 4		1 9 8 4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面 積	比 率
現 存 林 野 面 積	12,634.98	100.0	12,634.98	100.0	12,634.98	100.0	12,634.98	100.0
公 用 林	3,948.43	31.3	3,868.83	30.6	3,769.01	29.8	3,541.84	28.0
一 國 公 有 林	3,485.99	27.6	3,096.83	24.5	3,048.82	24.1	2,732.41	21.6
一 會 社 · 法 人 · 宗 中 林	466.23	3.7	771.00	6.1	707.55	5.7	809.43	6.4
私 有 林	8,686.55	68.7	8,766.15	69.4	8,865.97	69.2	9,093.14	72.0
一 大 都 市 山 主	256.49	2.0	457.39	3.6	759.36	6.0	1,566.38	12.4
一 隣 近 都 市 山 主	717.67	5.7	486.45	3.8	799.79	6.3	1,202.22	9.5
一 他 地 域 山 主	419.48	3.3	707.56	5.6	995.64	7.9	823.24	6.5
一 地 域 山 主	7,292.91	57.7	7,114.75	56.3	6,311.17	49.9	5,501.20	42.5
私有林中地域山主比重		83.9		81.2		71.2		59.0

*실제 林野面積만을 대상으로 만든 것임.

32.9%가 서울등 大都市 居住 山主所有이다. 이에 비하여 首都圈에서 먼 거리로 갈수록 大都市 山主 山林比重은 적어지고 隣近都市에 거주하는 山主山林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金堤郡 金溝面의 경우 隣近都市 山主의 山林比重이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個人所有 私有林 중 都市 山主가 차지하는 비중도 安城郡의 경우 54.6%, 金堤郡은 43.9%를 점유하여 交通이 좋고 投資價値가 높은 지역일수록 都市 山主의 비중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으로 經濟發展에 따라 더 많은 山地가 他用途로 전용되는 한편 都市 山主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山主 性格別 山林所有 內容을 時期別로 보면 많은 山林所有主가 不在山主化, 심하게는 都市山主化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8>은 時期別, 所有別 山林面積 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1954년 이후 國公有林의 面積과 比重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간 많은 國公有林이 貸付에 따른 私有化, 拂下 등에 의해 私有林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會社·法人 및 宗中所有 山林面積은 1954년에서 1984년 기간에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내용별로 보면 宗中所有 山林은 減少趨勢에 있는 반면에 會社·法人所有 山林面積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會社 및 法人들은 대부분 서울 등 大都市所在로서 1970년대 土地投機 붐과 함께 많은 林野를 구입하고 있다.

私有林面積 또한 점증하는 趨勢에 있다. 이에 반하여 地域山主의 山林面積은 현저한 減少趨勢에 있다. 1954년 전체 山林面積의 57.7%를 점유하던 地域山主 比重이 1964년에는 56.3%로 약간 감소하다가 1974년에는 49.9%로 1984년에는 42.5%로 急減하였다. 그만큼 많은 外地山主가 山林을 구입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4~84년간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이 따라 都市의 遊休資金이 山林으로 물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등 大都市 山主의 山林面積 추이를 보면 1954년 2%에 불과하던 것이 1984년에는 12.4%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面積으로는 1954년 256.5ha에서 1984년에는 1,563.3ha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時期別로는 1974년 이후 1984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전국적인 土地投機 붐과 함께 山林이 投機對象이 되어 都市人의 所有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山林이 木材生産 등 林業生産에 목적을 두었다기보다 地價差益을 노리는 土地投機의 對象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隣近都市 山主와 他地居住 山主의 山林所有 추세는 전술한 大都市 山主 또는 地域山主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隣近都市 山主의 山林比重은 1954~64년 기간에 감소하였다가 1964년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1950년대 山林의 가치가 낮았을 때는 山林을 팔았다가 1960년대 이후 山林에 대한 投資價値가 높아지면서 山林을 사들이는 일종의 財産增殖 형태의 山林所有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他地域 山主들은 1954년 이후 필요에 따라 1974년까지 山林所有를 증가시켰다가 1974년 이후 山林을 賣渡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70년대 중반 이후 山地價格이 높아지면서 他地에 두는 것보다 높은 값으로 팔아서 필요한 부분에 投資하려는 경향이거나, 아니면 地域情報에 어두운 他地人 山林을 大都市人들에게 중개하는 地域仲介人의 行態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都市山主의 비중은 증가된 것으로 전망되며, 그만큼 많은 山地가 放置 또는 財産增殖 目的으로 소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地域山主들이 소유하고 있는 山林에 대하여 經濟的 期待를 거의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山林을 投資 또는 所得源이라기보다 하나의 財産으로 墓地, 採草地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資金이 필요한 경우 값만 맞으면 언제든지 林野를 팔 수 있으며 그 대상은 都市山主이다. 個人所有 私有林 중 地域山主 比重이 1954년 83.9%로 대부분을 차지하던 것이 1984년 59%로 急減한 현상이 바로 地域山主의 對山林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언제든지 자신의 所有林野를 팔 수 있다는 思考하에서 山林에 投資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다.

建國 후 약 40년간 우리 나라 山林所有의 變化는 장기적인 山地資源化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간 山林所有 實態를 파악조차도 못하고 造林一邊到로 밀어 부친 林政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林業, 山村, 林政에 대하여 高度産業社會가 요구하는 보다 값싼 生産物과 勞動力, 土地에 대응하지 못할 때 林業部門에 부딪치는 어려움은 보다 클 것이다.

IV. 結 論

그간 우리 나라는 山林綠化에만 급급했을 뿐 山林資源化를 위한 基盤造成에는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私有林의 所有規模가 극히 영세하지만, 그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山林經營을 담당할 私有林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對策을 강구하지 못한 채 40년을 보내고 말았다. 私有林經營의 合理化를 위해서는 먼저 그의 生産基盤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所有規模 2~3ha의 山林農家에게 장래 私有林 經營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山林經營은 그 特性상 大面積 粗放經營의 有利性에서 출발한다. 그런데도 山林生産基盤을 확보하기 위한 經營規模의 擴大 노력 없이 도리어 많은 山林의 零細化·分割化가 촉진되었다.

사실 우리 나라는 林政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山林所有實態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所有實態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단순한 山林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林家所得政策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綠化基盤이 완성된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適正規模를 가진 山林經營體를 유도하여 21

세기 産業社會에 합당한 所得과 林業을 하나의 業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産業으로 육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林業은 山林을 造成, 伐採할 때까지 50~100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産業보다 生産基盤(山林所有 등)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체 山林所有主의 88%가 山林經營을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에 있다. 所有規模가 극히 영세하고 山林과 먼 거리에 위치하는 都市 및 他地居住 山主들이다. 그리고 山林所有의 변화가 심하고 都市山主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零細山主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大面積 山林所有主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山林所有構造의 兩極化 現象이 진행되고 있다. 零細山主의 增加는 대부분 利用目的이 墓地確保에 있으며, 大面積 山林所有主는 土地投機에 목적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造林投資의 經濟性에도 문제가 있지만 山林政策이 林家所得과 거의 무관하여 山林所有者의 관심을 끌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 일반의 山林에 대한 인식은 墓地나 財産的 價値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단지 「나무가 서 있는 곳」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山林經營에 대한 潛在的 可能性이 있는 전체 山林所有主의 12%를 차지하는 大面積 所有者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大面積 所有라고 하는 것은 所有面積이 많다는 것뿐이지 小規模의 山林筆地를 여러 개 分散 所有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분산되어 있으며 行政區域까지 다른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있다. 10ha 규모의 山林을 所有하려면 최소한 5~6筆地의 山林을 구입해야 하며 山林을 한 곳에 集團化하기도 힘들다. 大規模 山林所有者라

도 단지 所有일 뿐이지 集團化된, 規模의 經濟를 살릴 수 있는 山林은 아니다. 山林經營을 위한 大規模 所有가 아니라 小規模의 山林을 이곳저곳에 소유하여 결과적으로 大面積 所有者가 된 것에 불과하다.

그간 우리 나라는 10ha 이상 山林所有階層을 私有林經營의 주축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所有形態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구상이다. 山林은 所有主의 性格과 그에 따라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農地와 같이 交換併합도 어렵다. 山林 중에 墓所, 위치에 따른 地價, 林相 등 交換併합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大規模 山主의 대부분이 都市山主이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면에서 장래 山林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山林은 農家主변에 위치하여 主副産物의 생산이 農家所得 增大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山林所得은 農家所得構造의 多樣化로 부족한 農業所得의 補充的 역할로서 그의 대상이 農村住民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山林計劃도 지역의 경제사회적 실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地域林業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林業은 林業이 맡은 사회적 책임과 公益機能의 調和의 바탕 위에서 地域林業으로 성장할 때 公共投資의 妥當性과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山林所有에 대한 法的인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合理的 利用을 위한 방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山林所有制度에 대한 기본적 對策 없이 이런 추세대로 방치한다면 山林資源化는 政策目標은 될지언정 産業社會의 林業으로서의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甲德, “墓地實態에 관한 研究,” 「서울大農大研究報告」, 第7卷 第2號, 1982, pp. 215-230.
- 金聖昊 외, 「農地制度 및 農地保存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金演表, “山林과 資源管理,” 山林資源의 合理的 管理 및 開發에 관한 세미나 主題發表 論文, 韓國林學會, 1983.
- 愼鏞夏, “日帝下の 朝鮮土地調查事業과 國有地 創出 및 調查,” 「朝鮮土地調查事業研究」, 韓國研究院, 1979.
- 李廣遠, “山村住民의 山林保護에 대한 經濟的 心理的 要因分析: 山林生産構造에 따르는 經濟心理狀,” 「韓國林學會誌」, 第36卷, 1977, pp. 38-46.
- _____, 「林地開發과 山地農業發展方向」, 研究報告7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_____, “林業構造와 山林所有의 問題點과 對策,” 「農村經濟」, 第7卷 第3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pp. 67-79.
- _____, 「韓國 山林所有構造 및 利用實態 分析」, 研究報告 9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_____, “山林所有權 移轉實態와 그의 要因分析,” 「農村經濟」, 第9卷 第1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pp. 87-100.
- _____, “山村의 問題狀況과 國土空間上的 位置: 山村에 대한 새로운 視角의 必要性,” 「農村經濟」, 第9卷 第4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pp. 101-112.
- 朝鮮總督府, 「朝鮮林野調查事業報告書」, 1938.
- 鄭佐容 외, “林野地の 開發 및 利用에 관한 調查研究,” 「慶尙大 農業研究所報」, 第17卷 第1號, 1984, pp. 1-30.